<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디언 노인의 양파**

멕시코시티의 대형 시장 그늘진 한 구석에 '포타라모'라는 인디언 노인이 있었다. 노인 앞에는 양파 스무 줄이 걸려 있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 10센트라오.

포타라모는 말했다.

-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 20센트라오.
- 세 줄에는요?
- 30센트라오.

그러자 미국인이 말했다.

- 별로 깎아주시는 게 없군요. 25센트는 어떻습니까?
- 안되오.

인디언이 말했다.

- 스무 줄을 다 사면 얼맙니까?

미국인이 물었다.

- 스무 줄을 전무 팔 수는 없소.

인디언이 대답했다.

-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양파 팔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미국인이 물었다. 그러자 인디언이 답했다.

-아니오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에 나와 있는 거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어깨에 걸치는 모포를 사랑한다오.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한다오. 페드로와 루이스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작물 얘기 하는 것을 사랑한다오. 친구들 보는 것을 사랑한다오. 그것이 내 삶이오. 바로 그걸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스무 줄을 파는 거요. 한 사람한테 몽땅 팔면 내 하루는 그걸로 끝이오.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오. 그렇게는 할 수 없다오.

"양파 파는 노인" 이야기는 삶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금 싸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양파를 팔아치우고 돌아서는 편을 택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인디언 노인의 모습은 낯설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대신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게 효율의 노예가 된 듯 합니다.

조금 느리고 더디게, 그러면서 사랑해야 할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바라보는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지요.

교회 목표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생활지침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1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3월 10일
☎520-9464/021-292-1639.✉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사랑은.... 나도 입이 비뚤어 지는 것

의사인 나는 이제 막 수술에서 회복된 어떤 여성 환자의 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후에도 옆얼굴이 마비되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얼핏보면 어릿광대 같은 모습이었다. 입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한가닥이 절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뺨에서 암세포가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수술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신경 한가닥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생동안 그런 얼굴로 살아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남편도 그녀를 내려다보며 환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불빛 속에서 그들은 마치 내 존재를 잊은 양 열심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비뚤어진 얼굴을 해 갖고서도 이토록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이윽고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 입은 평생동안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요?"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젊은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난 그 모습이 좋은데 뭘. 아주 귀여워 보인다고."나는 그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차마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나는 바닥에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내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는 아내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잔뜩 비뚤어진 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직도 입맞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눈높이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위해 아기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7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9(고난주간 1)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39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규임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5:1-11(신 96)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ouple's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누가와의 여행" -깊은데에 던지라-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59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3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 일 안 내
3일	이광희	최재학	권용일.김종건.	사카시다.최기향
10일	**이규임**	**권용일**	**김성국.박일영**	**이종길.송정남**
17일	이기중	김교섭	양경배.윤형권	박병민.이기중
24일	이재영	김경숙	이광희.이재영	이재영.김경숙
31일	이지영	김동숙	이종길.이종운	정덕수.김순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12시	수요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아동.학생.청년부: 주일12시

교 회 소 식

1.2002년 교회생활 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엡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믿음의 어머니'정기기도회:화요일(12일). 저녁 7:30. 교회
'약속의 아비' 정기기도회:목요일(14일). 저녁 7:30. 교회
*아버지,어머니의 기도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살아있게 합니다.

3.교역자(부목사): 임성광 목사님께서 우리교회에서 정식시무하십니다

4.Day light saving time: 이번 토요일은 저녁에 미리 9시를 8시로.....
*깜박하시면 다음주일예배에 1시간 일찍 오실 수 있습니다.

5.다음주일(Only)예배 시간 변경: 본교회 행사관계로 12: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6.교회화장실 보수
*월요일(내일)부터 Hall 화장실 보수를 교우들의 자원봉사로 하려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교우의 자원봉사를 기다립니다. Tea Time 시간에 1,2남선교회원들의 모임을 갖겠습니다.

7.담당자
*1구역장:이지영 집사 .부구역장:신영화 집사
2구역장:박정자 집사 .부구역장:이기중 집사
*제2남선교회장:윤형권 집사(선출)
*관리부장:박병민 집사
*예배부장:권용일 집사.부감:윤형권 집사

8.봉헌:교회용 computer. 권용일,이지영 집사

9.교우소식
*한국방문:박정자 집사. 친정 부친 병환으로 급히 한국방문.기도해 주세요
*이사:사카시다 키쿠오 집사.최기향 집사. 전망좋은 방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셨습니다.
☎418-4020 ✉1-252 Onewa Rd. Birkenhead.

10.등록:갈보리가족됨을 기뻐합니다.
*김진근.하원림 성도(민정.민석)☎525-4032 ✉ unit 4-3B Harrison Rd. Mt. Wellington
*김반석.정이지 집사<기현.기원.채유니나(조카)>☎475-5757
✉ 2 Maidstone Pl. Browns Bay.

11.축하합니다:<결혼기념일> 김교섭 장로.정희자 권사(15일)
어느덧 희끗해진 머리, 그러나 친정 아버지 앞에선 아직도 밝으스레 새악시! 행~~~~복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대해 겸허한 마음을 지닌 사람
가진 것이 별로 없음에도 너무 많이 가졌다며 미안해하는 사람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에도 창피하다며 두 손 내젓는 사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을...